

기독교 상담과정의 독특성

안 경 승*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독교 상담과정을 살펴봄에 기독교상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만이 아니고 상담과정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실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우선 기독교 상담과정이 일반상담과정과 형식 상 공유하는 측면을 살펴봄에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다. 이 부분은 주로 상담자 훈련을 위해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헌들을 중심으로 보편적 흐름과 틀을 개관한다. 반면에 형식에서 같아 보인다고 해도, 기독교 상담과정이 구별되는 내면적 측면을 전제와 자세의 관점에서 찾아본다. 상담 실제의 차이는 이론만이 아니고 여러 주제에 대한 성경적 전제에서 분명해진다. 기독교상담은 인간관, 병리관, 회복의 목표, 진단의 기준 등에서 성경적 관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또한 인격과 영성을 소유한 기독교 상담자가 상담과 내담자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구별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 상담과정 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관계, 탐색, 평가, 개입의 차원에서 명확히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경적 상담과 영적 접근의 상담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주로 적용하였고, 다양한 영적 자원의 활용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기독교상담은 이론적 토대만이 아니고 실제 상담과정이 명료해지고 더 나아가 이것을 훈련하여 실습하게 될 때 조금 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단어: 기독교 상담과정, 영적 자원, 영적 훈련, 전제, 자세

• 논문 투고일: 2016년 9월 24일

• 논문 수정일: 2016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10월 30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여는 글

기독교상담은 기독교적 돌봄에 대한 깊은 신앙적 소명과 함께 인간관, 병리관, 그리고 해결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관점과 전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기독교 상담자들은 치료적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가치의 필요성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나 수용이 실제로 상담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숙제이다. 혹자는 “무슨 상담이론을 배웠던 간에 결국 상담은 그 사람이 받은 상담실습, 다시 말해 자신이 배우고 훈련 받은 상담과정에 따라 상담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상담과정을 훈련 받는데 있어서 기독교상담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 요소를 적용해서 배우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아니 “과연 기독교 상담과정이라는 것이 있나?” 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것이 왜곡된 평가나 오해라기보다는, 기독교 상담현장의 모습을 정직하게 반영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종교적(기독교)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일반적 상담 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담현장과 내담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 상담자가 일반상담의 정황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상담자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이 이뤄지는 치료적 과정을 기독교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더 세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상담은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용하는 실제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기독교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다. 기독교 상담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개인 상담과정에 있어서 일반 상담과정과의 공통성을 개관하고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을 추적한다. 이론만이 아니고 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기독교 상담과정의 내용을 찾아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유사한 형식

과정(process)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이나 상태가 진행되는 경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설명하는 단계가 있다.¹⁾ 인생의 단계, 발달의 단계, 계절의 단계, 회복 또는 치료의 단계가 있다. 상담 역시 과정과 그로 인한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정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단계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고 각각의 접근방법에 따라 독특한 면이 있다.

실제로 일반상담의 기본적인 과정을 살펴 볼 때,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예상 가능한 유사한 단계를 발견한다. 물론 내담자의 구성이 개인이 아닌 부부나 가족이 된다면, 상담 구조가 집단으로 확대될 경우에 그 실제의 내용을 공통분모로 묶어내기가 어려워진다.²⁾ 하지만 일반상담 내에도 수많은 심리이론과 다양한 상담적 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개인상담의 영역에서 유사한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이론과 방법론들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인 상담과정이 기독교 상담과정에도 보여 지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기독교상담이 상담과정을 위한 구조화의 틀과 흐름에 있어서 일반상담과 뚜렷한 구별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도움을 주고받는 현상이라는 보편성이 있다. 그리고 ‘치료적 만남’이라는 목적을 이뤄가는 일반적 과정이 있다. 내담자의 어려움에 대해 확인하고 수용 가능한 문제의 진단이 대화로 진행되

1) Elizabeth R. Welfel & Lewis E. Patterson, *The Counseling Process*, 한재희 역, 『상담 과정의 통합적 모델: 다이론적 통합적 접근』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41.

2) 심상권, “목회상담과 심리치료의 실제”, 서울신학대학교 제2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000.10.: 2.

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는 변화의 목표를 합의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간다. 각 단계 내의 나름의 특성과 표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담과정은 대체로 ① 관계형성단계, ② 탐색단계, ③ 개입단계, ④ 종결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단계는 장기상담만이 아니고 단기 상담에도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기독교상담은 실제 상담이 이뤄지는 내용과 현상에서 일반상담과정과 유사점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형식과 흐름상의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상담에서의 실습훈련의 자료가 일반적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동안 기독교 상담과정을 훈련하는데 활용해온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과정과 관련한 국내의 문헌으로 1980년 이후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적인 역할을 해 왔던 대표적인 자료는 이장호의 『상담면접의 기초』와 김계현의 『카운슬링의 실제』이었다.³⁾ 이 책들은 상담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단계와 함께, 상담의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주 내용은 상담신청받기, 접수면접, 첫회상담, 질문기법, 사례관리, 종결 등의 실제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이후 여러 상담학자들에 의해서 상담의 이론과 실재를 아울러서 소개하는 다수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대부분 개인 상담과정의 근본적 틀은 유지하면서, 각 단계에 따른 세부적 목표와 기법들을 제시하고 실습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안영·송현중 같은 경우 상담과정을 시작단계, 발전단계, 행동변화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내의 원리와 기법을 제시한다.⁴⁾ 이러한 실무 중심적 접근 외에 상담과정과 관련된 문헌들은 첫째, 각 각의 이론 중심(정서, 인지·행동, 계슈탈트, 개인

3) 이장호, 『상담면접의 기초』(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2); 김계현, 『카운셀링의 실제』(서울: 성원사, 1990).

4) 노안영·송현중, 『상담실습자를 위한 상담의 원리와 기술』(서울: 학지사, 2006), 85-216.

심리학, 정신분석, 인간중심, TA, 현실치료 등)으로 상담의 실재를 적용한 접근, 둘째, 특별한 상담적 주제(진로, 학습, 학대, 다문화, 중독 등)와 상담대상(가족, 아동, 청년, 노인, 부모, 집단 등)에 따라 이론과 실재를 제시한 접근을 찾아보게 된다.

외국 문헌으로는 초판 이후 개정 9판까지 번역 소개된 Gerard Egan의 *The Skilled Helper* 가 있다.⁵⁾ 그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 행동변화를 주목적으로 삼고, 상담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된다.⁶⁾ 1단계는 현재의 모습(The Current Picture)으로 명명했는데, 핵심 내용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핵심주제를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다. 1단계의 첫 번째 과제는 치료적 소통기술(경청과 공감)을 통해 내담자가 자기를 개방하도록 돕고, 탐색되어진 결과를 나누며 초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자기도전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행동으로 발전하도록 소통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역기능적인 생각, 행동, 정서표현을 스스로 도전하도록 적절하게 초대한다. 세 번째 과제는 내담자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Egan은 이것을 가치(value)라고 표현한다. 효과적인 상담은 내담자의 삶에 가치를 더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어지는 2단계의 원하는 모습(The Preferred Picture)과 3단계의 나아갈 길(The Way Forward)에서 강조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 의사를 결정하는 것,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2단계는 내담자가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고 전념하도록 돕는 것으

5) Gerard Egan, *The Skilled Helper: A Problem Management and Opportunity Development Approach to Helping*, 9th ed.(Belmont, CA.: Brooks/Cole, 2009), xiv-xvi.

6) 기독교 상담학자인 Tim Clinton과 George Ohlschlager은 자신들의 기독교 상담과정이 Egan의 단계를 통합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보편성과 단순성을 들고 있다. Tim Clinton & George Ohlschlager "Competent Christian Counseling: Definition and Dynamics," in *Competent Christian Counseling*, eds. Timothy Clinton & George Ohlschlager(Colorado Springs, CO.: Waterbrook press, 2002), 64.

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변화가 필요한 주제를 구체화하기, 헌신을 다짐하기’ 라는 과제를 수행한다. 3단계는 내담자가 목표를 계획하고 달성하도록 돕는 것으로 역시 세 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며 실행 가능한 목표가 만들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근래에 많이 활용되는 문헌은 Clara E. Hill과 Karen M. O’ Brien의 『상담의 기술』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주요 심리이론들과 그에 따른 상담 실재를 적용한 통합모델이다.⁷⁾ 전반적으로 상담과정과 관련된 문헌들은 상담기술만을 다룬 책과 한 가지 특성이론에 근거한 상담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구분된다. 이에 반해서 이 책은 상충되는 전제를 가진 여러 이론가들(Rogers, Freud, Erikson, Mahler, Skinner, Ellis, Beck 등)의 학문적 내용에 바탕을 두고 실재를 제시한다. 이것을 상담과정별로 정리하면 탐색은 내담자 중심, 통찰은 정신분석, 그리고 실행은 인지-행동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둘째, 상담모델의 철학적 기초를 밝히며 인간 본성에 대한 저자의 가정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상당히 책임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독교상담 역시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더 정확하게는 성경적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실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추구한다. 비록 기독교적 가정과의 상이점은 있지만 가정-이론-실재-과정으로 이어지는 상담의 방법론을 모형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이들의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은 생리학적 특성과 환경(어린 시절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②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지만 선택과 자유의지가 있다. ③ 인간은 세상의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방어적 략을 발달시

7) Clara E. Hill & Karen M. O’ Brien, *Helping Skills*, 주은선 역, 『성공적인 탐색·통찰·실행 상담을 위한 상담의 기술』(서울: 학지사, 2004), 4.

킨다. ④ 인간의 성격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감정과 사고 ·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셋째, 상담과정을 3단계(탐색, 통찰, 실행)로 구분한다. 우선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구조적 틀을 마련한다. 통찰의 기반은 문제를 깊이 탐색한 후에만 들어지고 연이은 실행은 문제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탐색단계에서의 과제는 라포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감정과 사고를 탐색하도록 촉진하여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내담자에 대한 알기 등이다. 통찰단계의 과제는 특정한 고민과 통찰이 내담자 자신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와 이로 인해 치료적 관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실행단계의 과제는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을 돕고, 변화된 것을 어떻게 생활에서 실행으로 옮기는지를 도와주는 것이다.

기독교상담 분야에서는 Gray R. Collins가 상담과정을 접촉단계, 시작단계, 문제서술단계, 문제해결단계 그리고 종결단계로 나눈다.⁹⁾ 내용과 흐름에 있어서 대부분 일반적 상담과정과 유사하나, 문제서술과 문제해결단계에서 강조점을 달리 한다. 문제서술을 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종교적 영역이나 영적 생활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내담자의 문제가 영적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해결의 단계에서 영적 자원이 기여하는 바를 분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William T. Kirwan 같은 경우는 기독교 상담모델을 구성하면서 3단계의 상담과정을 제공한다.¹⁰⁾ 1단계는 소속감의 전달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과제이자 기법

8) Hill & O'Brien, 『성공적인 탐색 · 통찰 · 실행 상담을 위한 상담의 기술』, 48.

9) Gary R. Collins, *Effective Counseling*, 정동섭 역, 『효과적인 상담』 (서울: 두란노, 1998), 59-65.

10) William 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정동섭 역,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서울: 예찬사, 2007), 222.

은 공감, 진실성, 따뜻함과 존중, 구체성이다. 건덕이라 이름 붙인 2단계는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고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교리적 자기노출, 대면, 즉시성의 기법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섬김의 단계로 내담자가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행동 노선의 계획 및 실행기법을 필요로 한다. 최은영은 Kirwan의 상담과정을 평가하면서 “일반적인 상담과정에서 상담의 초기, 중기, 말기의 과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¹¹⁾ 상담초기의 안전하고 협조적인 관계 형성, 상담중기의 내담자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이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 상담말기의 내담자가 바람직한 변화를 실제 삶과 행동에 연결하여 살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은 그 전제, 목적, 자원에 있어서 일반상담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상담과정의 단계에서 일부 공통된 흐름을 발견한다. Randy Patten와 Mark Dutton 같은 경우 상담과정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나, 순차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¹²⁾ ① 적절한 정보를 모으기(되돌아가기, 넓게 가기, 깊게 가기, 열린 대화), ② 문제를 분류하기(행동, 생각, 동기), ③ 관계 맺기(접근 가능한 만남, 필요에 민감한 만남, 정직하고 모델이 되는 만남 등), ④ 소망(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대한 소통, 회복에 대한 믿음,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 제시), ⑤ 가르침(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⑥ 과제.

2. 유사하지만 다른 접근

비록 과정과 그에 따른 단계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몇 가지 이유에

11) 최은영, 『기독교상담학: 비평과 사례』(서울: 핏볼트리니티출판부, 2015), 133.

12) Randy Pattern & Mark Dutton, “The Central Elements of the Biblical Counseling Process,” in *Christ-Centered Biblical Counseling*, eds. James MacDonald, Bob Kelleman & Steve Viars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13), 326–338.

서 기독교 상담과정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상담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여 치료적 도움을 나누면서도, 그 표면적 내용 어떤 면이 다른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 상담과정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전제의 차이

기독교상담의 근본 전제가 일반상담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적 전제와 다를 뿐 아니라 일부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대부분의 기독교 상담자들은 상담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들의 입장을 기독교적 토대 위에서 제한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¹³⁾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노력이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상의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상담과정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이론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이 이론적 근거가 없는 실제 역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어떤 이론적 전제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보기에는 같지만 다른 상담과정을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게다가 우리가 하는 기독교적 돌봄의 내용을 성경의 전제 위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기독교 상담자의 확신과 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이것을 Rick Marrs는 날씨와 기상상태의 연계성을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한다.¹⁴⁾

13) 2000년 이후에 저술된 한국의 기독교 상담자의 문헌들에서 기독교상담에 대한 이러한 전제적 이해가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된다. 전요섭,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좋은나무, 2001), 7-16; 오윤선,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비앤피, 2007), 24-35; 신명숙, 『기독교상담』 (서울: 학지사, 2010), 13-49; 양병모, 『기독교상담의 이해: 개관과 전망』 (서울: 하기서원, 2011), 29-91; 심수명·유근준, 『기독교 상담자를 위한 상담의 과정과 기술』 (서울: 도서출판 다세움, 2012), 18-23; 최은영, 『기독교상담학: 비평과 사례』 (서울: 햇빛트리니티출판부, 2015), 44-116; 이관직, 『성경으로 본 기독교상담』 (서울: 지혜와 사랑, 2016), 9-116.

14) Rick Marrs, "Christian Counseling: What It is, What It is not, and What Lutheranism can Contribute," *Lutheran Education* 133(1997): 87-88.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비, 눈, 햇살 또는 안개와 같은 날씨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된다. 기온과 습도는 오감으로 느껴지고 대기의 상태는 눈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대기상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박을 만들어내는 성층권의 구름이나 돌풍이나 토네이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바람이나 기온의 변화이다. 성층권의 제트기류는 우리가 사는 지역 어딘가의 하층부 대기 상태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상담에 있어서 치료적 만남과 신념 사이가 이와 비슷한 관계로 이해된다. 기독교의 성경적 전제와 심리학의 사상적 전제가 제트기류라고 하면,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둔 특정한 이론과 실체는 일상의 일기를 형성하는 하층부의 대기상태에 비유된다. 기독교상담은 인간의 본성적 선함 보다는 원죄를, 그리고 자연주의적이기 보다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됨을 신앙한다. 다른 색깔의 제트기류인 인간중심주의나 행동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제트기류라 해도 지상에서 경험하기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비와 바람을 가져올 수 있듯이, 기독교 상담과정에서 일반상담의 기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독교적 사랑과 관심이 내담자중심요법의 관계형성의 과정으로 설명되고 새 습관을 위한 경건의 연습이 행동주의의 개입과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전제에서 동기부여된 것이다.

H. Newton Malony와 David W. Augsburger는 기독교상담에서 신앙과 전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좋은 상담자는 상담에서 자신의 관점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일반상담 역시 가치 개입적(impositional)으로 내담자에게 접근한다고 평가한다. “정신분석 치료사가 그렇게 하고, 인지치료사가 그렇게 한다. 기독교 상담자가 역시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¹⁵⁾ 기독교 상담자는 한 격언과 같이, “할 일

15) H. Newton Malony & David W. Augsburger, *Christian Counseling: An Introduc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7), 18.

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일해야 한다”. 잠언은 이렇게 말한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 4:27-27). 다시 말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상담과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Malony와 Augsburger는 상담과정과 관련하여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을 구조적인 면에서 같아 보이지만, 그 근본적 내용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여섯 가지 요소를 언급한다: 인간관, 병리관, 진단, 치료계획, 목적, 장기적인 그림(건강한 삶에 대한 개념적 이해이자 미래에 대한 최선의 희망).¹⁶⁾ 더 나아가 전제적 이해와 상담과정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뒤따르게 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David Powlison은 기독교상담의 통합모형을 위해서 인식론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¹⁷⁾

첫째, 성경적 진리를 명료화하고 이것이 단지 전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용적 신학(*operational theology*)의 차원에서 발전시킨다.¹⁸⁾ 그에 중의 하나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상담적 용어를 조성하고 “무엇이” “어떻게”로 발전하는 다리를 놓아가는 것이다. Collins가 작업했던 것 같이 조직신학적 주제에 대한 상담학적 이해와 그것이 돌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서술하거나,¹⁹⁾ 반대로 상담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간의 문제나 고난을 포함한 다양한 현상적 주제를 기독교적 분석과 이해로 재해석하는 것이 이런 시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6) Malony & Augsburger, *Christian Counseling*, 19.

17) David Powlison, “Questions at the Crossroads,” in *Care for the Soul*, eds.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32-34.

18) 한재희, “기독교상담의 통합적 모델을 위한 고찰”,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유관순 연구」 제7권(2006): 96.

19) Gary R. Collin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현 역,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34-39.

둘째, 기독교상담이 일반적 모델을 통해 정보를 취하고 그것을 재해석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인간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반 상담모델은 기독교상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과 관련한 최근의 노력은 Mark R. McMinn과 Clark D. Campbell의 통합적인 기독교 심리치료이다.²⁰⁾ 행동주의적, 인지적, 상호관계적 치료모델들을 신학적 구조 안에서 하나의 기독교 상담접근으로 통합시켜서 상담과정을 제시한다. 이들이 통합적 치료의 근거로 삼은 것은 ‘하나님 형상’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하나님 형상의 세 가지 측면(기능적, 구조적, 관계적)을 소개하고 이것이 세 가지 통합적 상담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비교적 단기적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 어려움은 인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주관하며 해석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지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회기를 더 필요로 하는 기독교적 인지치료의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인간의 구조와 기능적 영역에 대한 회복의 토대가 되는 관계적 측면을 주시한다. 결국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맺어 가느냐가 모든 영역의 문제의 시작이었고 그러기에 해결점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과정은 시간이 갈수록 기법이 아닌 관계에 중심을 두고 새로운 관계 경험을 상담자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성경적 접근방법과 일반 상담과정의 핵심요소를 적용한다. 증상 중심적 상담, 인지상담, 관계 중심적 상담을 성경적 인간이해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상담과정의 틀을 통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담현장에서 실증적인 효과를 검증받는 통합적 기독교 상담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Siang-Yang Tan의 분석에 따르면 우울증을

20) Mark R. McMinn & Clark D.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Toward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oach* (Downers Grove, IL.: 2007), 113-143.

다루는 기독교 인지치료 접근,²¹⁾ 식이장애 해소를 위한 기독교 인지행동치료, 기독교 평신도상담, 불안해결을 위한 기독교 묵상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²²⁾ 인지상담 중의 하나인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 역시 기독교상담에 적용 가능한 일반 모델로 추천된다.²³⁾ ACT의 전제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는 고통, 타협 그리고 실패가 불가피하게 다가온다. 내담자는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문제 행동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될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런 후에 매일의 삶에서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겨지는 것을 찾고 스스로를 전념하면서 기쁨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2) 자세의 차이

상담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마음으로 내담자를 대하고 상담과정을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과정을 구별 짓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상담자 요인이 상담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단의 실증적 연구에서, 한국적 상담자 요인으로 ‘이해, 관계, 태도, 기법, 자기관리’를 제시하였다. 자기관리 항목에 상담자의 영성과 함께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피드백을 주고받는 동료 관계를 유

21) 기독교 인지상담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인 Larry Crabb은 상담과정을 7단계로 제시한다. (1단계) 문제 감정의 확인과 자각, (2단계) 문제 행동의 확인과 자각, (3단계) 문제 사고의 확인과 자각, (4단계) 잘못된 사고에 반하는 성경적 사고를 확인하고 가르침, (5단계) 성경적 사고에 대한 헌신, (6단계) 성경적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 (7단계) 성경계서 주도하시는 감정들을 확인. Larry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82), 162.

22) Siang-Yang T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정동섭 · 김영근 · 김형선 공역, 『상담과 심리치료: 기독교적 관점』 (서울: 이레서원, 2014), 537. 개인 상담과정은 아니지만 효과가 증명되는 집단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으로 용서를 위한 기독교 그룹상담, 용서를 위한 영적 그룹치료,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12단계 접근, 결혼불화해소를 위한 기독교 그룹인지행동치료, 결혼증진 개인 프로그램들 등이 있다.

23) Malony & Augsburg, *Christian Counseling*, 38-39.

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²⁴⁾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상담자의 영성이 상담에 주는 영향력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내담자의 신앙적 측면을 다룸으로써 높은 상담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기독교 심리치료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상담자 요인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²⁵⁾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가 상담효과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추적한 것이다. 상담과정 내의 치료동맹에서 효과적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 관계적 요소는 일치, 협력, 긍정적 존중이었다. 효과성을 검증하기에 불분명하지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요소는 진정성, 동맹관계의 결렬을 회복하기, 역전이의 관리였다.

상담자의 상담에 임하는 자세는 일반상담에서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상담자의 마음과 신앙적 성숙을 강조하는 기독교상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기독교 상담과정이 구별되는 본질적 요소는 상담자 자신이고 그 상담자의 인격과 내담자의 인격의 만남이 이뤄지는 치료적 관계이다. 이것이 같아 보이지만 기독교 상담과정이 가진 근본적인 차이이다.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상담자의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 대신에 활동하는 대리인이다.²⁶⁾ 기독교 상담자는 모든 상담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과 자원을 내담자에게 흘러가게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치유를 베풀기 위해서는 상

24) 김창대 · 권경인 · 한영주 · 손난희,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9권 3호(2008): 979-980.

25) R. Scott Stegman, Sarah L. Kelly & T. Mark Harwood, “Evidence-Based Relationship and Therapist Factors in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Evidence-Based for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ds. Everett L. Worthington, Jr., Eric L. Johnson, Joshua N. Hook, & Jamie D. Ate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3), 25-39.

26) Ian F. Jones, *The Counsel of Heaven on Earth*, 임윤희 역, 『성경적 기독교상담』 (서울: 학지사, 2010), 108.

담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상담자의 영성, 인식론적 우선순위, 통찰, 지혜, 인내, 성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출발점이자 자원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내담자에 대한 마음의 자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계약적 관계를 맺은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미묘한 우월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가적 이론을 적용하는 치료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이자 친구로 생각한다(살전 2:8). 이것을 Pattern과 Dutton은 구속적 우정(redemptive friendship)으로 표현했고, 상담이라는 만남 속에서 독특하게 구조화된 우정(uniquely structured friendship)이라고 부언하기도 했다.²⁷⁾

Samuel Southard 같은 경우는 상담(치료)를 설명하면서 기독교 상담자가 가져야 할 주요 자세이자 자원으로 지혜와 우정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혜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지혜는 창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계시된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실제적 관찰과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안내되어 진다.”²⁸⁾ 그리고 지혜가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정,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한 이해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능력이 요구된다. 역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지 않는 우정은 기독교상담이라고 할 수 없다. 김선옥과 이정기는 Bernard J. Tyrrell의 그리스도 요법(Christo-Therapy)를 소개하면서 상담자의 실존적 자세의 방법론으로 ‘실존적 사랑’을 소개한다.²⁹⁾ 이것은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말씀에 근거해서, 상담자가 ① 내담자를 있는 그

27) Randy Pattern & Mark Dutton, “The Nature of the Biblical Counseling Relationship,” in *Christ-Centered Biblical Counseling*, eds. James MacDonald, Bob Kelleman & Steve Viars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13), 309–310.

28) Samuel Southard, *Theology and Therapy: The Wisdom of God in the Context of Friendship* (Dallas, TX.: Word, 1989), ix.

29) 김선옥 · 이정기, “개인 면접 상담을 위한 기독교상담 구조화: 그리스도 요법을 중심으로”,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15호(2010): 156–158.

대로 사랑하고, ② 감정적, 관상적, 의지적인 형태로 사랑하고, ③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으로 사랑하는 가슴을 소유할 것을 강조하는 치료기법이다.

3. 다른 접근

기독교 상담과정이 일반 상담과정과 공유하는 보편적 측면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점을 살펴보았다. 내담자의 성향이나 상담실의 규정 등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담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기독교 상담과정의 다른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동안 상담과정 상의 차이 점이 두드러졌던 기독교상담 분야는 영성상담이나 성경적 상담이었다. Len Sperry 같은 경우는 임상실습에 영성이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며,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영성적 국면을 아우르는 임상실습적 접근을 설명하기 위해서 채택한 용어는 ‘영성으로 조율된 심리치료와 상담’이다.³⁰⁾ 그리고 목회상담, 심리치료, 영적 지도와의 상호 비교를 하며 영성으로 조율된 상담의 차별점을 의뢰인들(내담자), 목표, 상담자와의 관계, 개입과 방법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구분한다.³¹⁾ 여기서 관계, 탐색, 평가, 개입이라는 흐름 속에서 다른 요소를 찾아본다.³²⁾

30) Len Sperry,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Incorporating the Spiritual Dimension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nn Arbor, MI.: Sheridan Books, 2001), xiii.

31) Sperry,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13-14.

32) 강병문은 아담스, 정정숙, 크랩, 커윈, 크레프트 등의 상담과정을 비교 연구하며 성경적 상담의 과정을 관계, 진리, 행함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하나님 간에 올바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사랑의 관계 설정은 내담자의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드러나게 하여 진리의 직면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진리의 직면이 올바로 되면 이제는 진리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 곧 하나님의 실제적 인도와 도우심이 필요하다. 강병문, “성경적 상담 과정의 세 단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제9권(2008): 263.

우선 기독교 상담과정은 상담 시간이 아닌 그 이전의 준비부터 다른 출발점을 갖게 된다. 다른 상담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담에 대한 자세와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채워갈 때 가능해진다. 우선적으로 돕는 자로 부름 받은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담이 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황규명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마 15:14)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변화된 사람만이 빛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정리한다.³³⁾ 상담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더불어 기독교상담의 핵심적 영적 자원인 기도와 성경이 개입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면서 자신과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의 인격화와 적용을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³⁴⁾

매 회기 마다는 아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병리관, 상담의 목표와 개입에 대한 성경적 전제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상담을 계획하고 점검한다. 일반 상담과정에서도 이전의 상담기록과 메모를 살피고 핵심주제와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기독교적 점검의 내용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사람이 이전의 삶의 태도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성숙한 신앙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름 짓는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과 허락하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33)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서울: 바이블리더스, 2008), 178.

34) David Powlison, *Speaking Truth in Love: Counsel in Community*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5), 49-54. 이 외에도 적절한 준비를 위한 여섯 가지의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①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② 자신의 태도와 삶을 점검하기, ③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 ④ 만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기, ⑤ 스스로의 위치를 바르게 확인하기 위해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를 종종 점검하기, ⑥ 상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 모으기.

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물어지고 준비된다.

1) 관계

기독교 상담과정에 있어서 관계는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고,³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듯이, 우리가 세워가는 관계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변화 사역을 위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³⁶⁾

하지만 단순한 일상적 관계가 변화를 가져오게 하지는 않는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지탱하게 하는 관계적 능력은 사랑이다. 기독교상담은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기독교상담만이 진정한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요일 4:11, 19).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계획 중의 하나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 돌봄과 수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변화는 시작한다. 또 하나의 관계적 강점은 내담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표현되는 존중이다(창 1:26-28; 롬 8:29; 벧후 3:9). 비록 여러모로 얼룩지고 상처 났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 이것은 내담자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열려진 겸손함(갈 6:1-2)과³⁷⁾ 내담자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우선에 두고 문제를 진지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다가간다.

이것을 Paul D. Tripp은 상담과정의 ‘사랑하라’ 단계에서 설명하면서 구속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사랑의

35) McMinn &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33-34.

36) Paul 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서울: 디모테, 2005), 182.

37) Jay E. Adams, *Critical Stages of Biblical Counseling: Finishing Well, Breaking Through, and Getting Started* (Stanley, NC.: Timeless Text, 2002), 60. Adams는 상담자가 온유해야하고 어떤 형태의 우월감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관계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성경이 관계와 관련하여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①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라, ②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육신하라, ③ 고통 받는 자에게 공감하라, ④ 새로운 계획을 받아들여라.³⁸⁾ 같은 맥락에서 이정기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위한 기독교 상담자의 접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①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② 사랑하기 위해서는 회심이 깊어져야 한다. 회심의 경험에서 자신이 변하게 될 때 사랑이 가능하다. ③ 내담자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상담자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④ 사랑하려면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⑤ 감상적 사랑 이상의 직면을 포함한 사랑을 하며, 이를 통해 내담자를 자유케 해야 한다.³⁹⁾

Wayne A. Mack 같은 경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긍휼, 존중, 진실을 설명한다.⁴⁰⁾ 더 나아가 Mack은 각각의 관계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례와 방법을 성경적 근거 위에 설명하고 있다. 긍휼을 위해서 ‘내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을 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내담자를 가족 구성원 같이 생각하기, 자신의 죄성

38) Tripp,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186. 전체 상담과정은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 이고 또 다른 상담실습교본에서는 상담과정을 영접(Welcome), 이해(Understanding), 직면(Confrontation), 활동(Action)으로 구분한다. 영접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일반 과정에서 말하는 관계형성단계와 부합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의 주요 요소로 사랑, 동정, 존경, 신뢰, 소망을 말한다. 이해는 자료 수집을 하며 내담자를 탐색하는 것으로 그 초점은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직면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변화를 위한 안내를 권면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개입이 이뤄진다. 마지막 단계인 활동에서는 통찰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의 삶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Paul D. Tripp, “성경적 변화의 방법”, 『성경적 상담의 본질』 (서울: 도서출판 선교넷북, 2007), 105.

39) 이정기, 『그리스도요법 입문: 깨달음과 치유』 (부천: 상담신학연구소, 2007), 143-175.

40) Wayne A. Mack, 『Developing a Helping Relationship with Counselee,』 in *Counseling: How to Counsel Biblically*, eds. John MacArthur & Wayne A. Mack(Nashville, TN.: Thomas Nelson, 2005), 102-113.

에 대해서 생각하기, 긍휼을 전달하는 실제적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이다.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을 하기, 내담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기, 신뢰하고 신뢰를 표현하기, 내담자의 반응을 수용하기, 비밀을 유지하기' 이다. 진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격에 정직하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 정직하기, 목표와 계획에 대해 정직하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정직하기' 이다.

2) 탐색

무엇을 왜 탐색하느냐 하는 것은 상담자의 관점과 내담자의 호소문제, 상담의 회기에 따라 다양하다. 기본적인 것은 내담자를 전반적으로 알고 그 사람이 가져온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여러 차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rnold Lazarus 같은 경우는 인간됨의 차원을 7가지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축적 모델인 BASIC I.D.로 설명한다.⁴¹⁾ 인지행동이론에서 나왔지만 인간을 탐색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7가지 차원이 포괄적으로 고려되고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전인적 정보에 더하여, 상담자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만나는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여러 자료를 탐색한다.

이 단계와 관련해서 기독교 상담과정은 관심 주제와 관점에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연결 짓는 질문을 통해 탐색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문제로 씨름하다 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난

41) Arnold A. Lazarus, *The Practice of Multimodal Therapy: Systematic, Comprehensive, and Effective Psychotherapy*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13-18. BASIC I.D.는 행동(Behavior), 감정(Affect), 감각(Sensations), 심상/Images), 인지(Cognitions),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s), 약물(Drugs/Biology)의 두문자어이다. 대인관계에 포함되지만 한 개인의 삶에 직접적이고 실제적 영향력을 끼친 가족력에 대한 이해 역시 탐색될 필요가 있다.

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이 직면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한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탐색하는 것이다.⁴²⁾ 이것을 위한 질문은 “당면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분은 누구신가? 그 분은 무엇을 하시나? 그분은 무엇을 약속하셨나? 그 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 분의 의중에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는가?” 등이다.

둘째, 넓은 질문에서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며 탐색의 방향이 깊어진다.⁴³⁾ 일반상담에서의 심층탐색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내담자의 강점, 결핍, 개인 상호기능, 과거에서 오는 짐, 느낌, 욕망, 욕구 등에 대한 통찰을 하는 것이다.⁴⁴⁾ 반면에 기독교상담의 심층탐색은 내담자의 영적인 측면과 심층적 내면의 영역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 심층탐색의 핵심부에 그 사람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 Siang-Yang Tan은 7가지 다축적 모델에서 영성의 S가 추가된 BASIC I.D.S를 제안하며 인간의 영적인 차원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탐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S(영성)는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적 영역 중의 하나가 아닌 다른 모든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중심으로 여겨져야 한다. 영은 진정한 인간됨의 기초이고 지금 경험하는 문제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탐색되어야 한다.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Malony와 Augsburgers는 영성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붙잡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기독교상담의 목적이기

42) Powlison, *Speaking Truth in Love*, 55.

43) Tripp, “성경적 변화의 방법”, 116.

44) Welfel & Patterson, 『상담 과정의 통합적 모델』, 96.

도 하다고 말한다.⁴⁵⁾ 영적인 체험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에 동기와 힘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체험을 바르게 설명하고 유지시켜주는 영적 활동(성경, 기도, 예배, 섬김 등)은 기능적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이끌어 준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인 현 상태에 대한 탐색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의 탐색이 필요한 심층영역은 마음이다. Dallas Willard는 “지금의 삶과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 내면에 있다”고 말하며, 인간 내면을 지칭하는 마음의 실상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어떻게 사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⁴⁶⁾ 마음은 전인(생각, 감정, 선택, 몸, 사회적 정황, 영혼)의 결정과 선택이 이뤄지는 중앙부서와 같은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담자를 탐색하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내담자의 마음 내의 생각, 동기, 욕구, 전제, 해석들이 수집된다(잠 20:5). 여기서 내담자의 문제의 뿌리가 드러나는데, 마음이 나누일 때가 있기도 하고(잠 25:28), 마음 자체가 다른 것의 통치를 받기도 한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마음의 우상’이라고 했고 이에 대한 상담학적 적용이 연구되고 있다.⁴⁷⁾ 우상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옹고 그릇에 대한 원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것을 따르거나 원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45) Malony & Augsburg, *Christian Counseling*, 27.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요법은 ‘영혼 즐기기’라는 말로 상담의 궁극적 목표를 제안한다. 이는 삶을 축제처럼 살게 하는 것이데, 하나님의 임재 이상의 일치를 경험하는 합일상태를 의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선옥·이정기, “개인 면접 상담을 위한 기독교상담 구조화”, 160-161.

46) Dallas Willard, *Renovation of the Heart*, 윤종석 역, 『마음의 혁신』(서울: 북 있는 사람, 2004), 27-28.

47) Howard Eyrich & Elyse Fitzpatrick, “The Diagnoses and Treatment of Idols of the Heart,” in *Christ-Centered Biblical Counseling*, eds. James MacDonald, Bob Kellemen & Steve Viars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13), 339-350; David Powlison, “Idols of the Heart and Vanity Fai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 no. 2(1995): 35-50.

을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몰두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규적인 승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다.

3) 평가

탐색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이에 근거하고 있는 평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개입의 계획과 전략 역시 평가의 기반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평가는 상담과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내담자의 문제의 본질, 즉 특성과 근원을 드러낸다. George Fitchett의 접근과 같이, 기독교상담 역시 필요하다면 뇌생리학적 차원(정신의학적 진단), 심리적(DSM에 기초한 진단), 가족 체계차원(가족시스템을 통한 이해),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차원(다문화적 이해), 사회적 문제의 차원(시스템의 이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⁴⁸⁾ Fitchett가 제안하는 모델은 평가 영역을 전인적 차원과 영적 차원(신념과 의미, 소명과 결과, 경험과 감정, 의식과 습관, 의례와 행위, 공동체, 권위와 기도)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곱 개의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 영적 건강과 전인적 건강의 긴밀한 연관관계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영적 차원의 평가는 보편적 영성의 측정이 아닌 기독교 신앙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이루고 현재의 문제의 원인이라면 해결의 자원으로 직·간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를 측정하는 것이다. 실제적 어려움은, 많은 내담자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되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효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의 힘으로 기능하지 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작용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단계의 주요 과제는 작용적 신앙으로 인

48) George Fitchett, *Assessing Spiritual Needs*, 유영권역, 『영적 진단을 위한 지침』(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69-74.

도하기 위해서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정규적인 신앙활동(교회출석, 성경 읽기, 기도생활 등)에 대한 질문, 신앙고백의 내용이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영적 평가도구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데,⁴⁹⁾ 진단도구가 제시하는 진단의 기준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영적 상태의 진단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상담자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Malony 같은 경우 성숙한 기독교인은 주체성, 성실성, 영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한다.⁵⁰⁾ 세 가지 측면은 각각 하나님-창조-주체성, 성자-구속-성실성, 성령-성화-영감의 성경적 맥락을 가진 것으로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주체성이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도록 정해졌다는 이해이다. 성실성은 죄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고 이제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영감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반면에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Howard Eyrich와 William Hines 같

49) 이 분야의 대표적인 자료는 Paul W. Pruyser,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유희동 역, 『진단자로서의 목사』 (서울: 기독교문사, 2002), 93-123; H. Newton Malony, "The Clinical Assessment of Optimal Religious Function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0, no.1 (1988): 3-17; David Powlison, "X-ray Question: Drawing Out the Whys and Wherefores of Human Behavio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8, no.1 (1999): 2-9.

50) H. Newton Malony, "How Counselors can Help People become More Spiritual through Religious Assessment," in *Religion, Psychopathology and Coping*, eds. H. Grzymala-Moszczyńska & B. Beit-Hallahmi (Atlanta, GA.: Rodopi, 1996), 245-262. 그의 영적 진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에 대한 인식, ② 하나님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수용, ③ 회개와 책임지는 것, ④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아는 것, ⑤ 조직화된 신앙활동과의 관련성, ⑥ 교제에 대한 경험, ⑦ 윤리적인 내용, ⑧ 신앙적 개방성.

은 경우는 평가를 ‘문제를 추출하기’, ‘방향을 결정하기’, ‘문제를 다시 생각하기’ 단계 내에 위치시키고 있다.⁵¹⁾ 성경적 상담에서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첫째, 네 가지 수준에서 문제를 분석한다. 제시되는 문제(Presentation), 실행되는(수반되는) 문제(Performance), 전제조건(습관화)의 문제(Preconditioning), 지각적 문제(Perceptual)이다.⁵²⁾ 둘째, 네 가지 수준 중에 한 영역을 진입구로 삼아 방향을 설정한다. 셋째, 내담자가 성경적 이해와 용어로 문제를 재개념화 하도록 돕는다.

4) 개입

기독교상담의 개입과정에서 영적 주제를 다루게 될 때, 다른 영적 훈련이나 제자훈련 과정과 구별되는 목적이 있다. 내담자의 신앙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활성화하도록 도와서, 지금 호소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속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지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인도하시는 역할을 친히 담당하신다.⁵³⁾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한다.

여기서 영적 자원의 활용이 개입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

51) Howard Eyrich & William Hines, *Curing the Heart: A Model for Biblical Counselor* (Scotland, UK.: Christian Focus, 2002), 105-128. 이들의 전체 상담과정은 ‘관계세우기, 자료수집하기, 문제를 추출하기, 방향을 결정하기, 문제를 다시 생각하기, 직면하기, 소망 함께하기, 헌신하기, 과제내주기, 과제평가하기’이다.

52) 본래 Jay E. Adams는 세 가지로 문제를 구분했는데(Presentation, Performance, Preconditioning), Eyrich와 Hines가 문제가 가진 결정적(decisive) 성격과 성경의 자각적 생각(엢 4:22-24; 롬 12:1-2)의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각적 문제(Perceptual)을 추가하였다.

53) Stanton L. Jones & Richard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이관직 역, 『현대심리치료』(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5), 539-541.

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이다. 그래서 기독교상담은 상담과정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해 주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회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내담자를 초대할 수 있다. 상담의 진행 중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다른 위격인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어 보신 예수님과 위로자 성령님께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 삼위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시간 속에 있는 내담자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과정을 그리스도요법은 마음비우기와 영혼즐기기로 칭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치유작업으로 설명한다. “기도를 통해 갈등 속에 존재하는 주님의 약속을 찾기도 하고, 결단을 위한 깨달음, 다시 말해 잘못된 신념, 감정,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⁵⁴⁾ 그리고 임재의 기도로 마무리 한다. 이것은 상담 후에도 내담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도록 돕는 기도이다.

둘째, ‘어떻게’에 ‘왜’를 더하는 개입으로 돕는다. 일반적 심리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매일을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현상적 실체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기독교상담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왜 그런지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설명한다. Eyrich & Hines는 로마서 1:18-32을 일반계시의 관점에서 설명한 후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선포하는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선포한다. (창 롬1:18-32). 또한 도덕적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기도 하고(롬 2:14-15), 우리가 관찰하는 것의 이유와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창조주로부터 전달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모든 관찰하는 사람 자체는 피조물 중

54) 김선옥·이정기, “개인 면접 상담을 위한 기독교상담 구조화”, 169.

의 일부이고 그러기에 유한하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한다.⁵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적 자원이 되는 이유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지금 경험하는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속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와 관점, 평가와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담자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나님과의 이야기 만들기, 대화, 비유, 예화, 삶 등을 통해)하며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위로, 임재, 선포의 말씀은 기독교상담 현장이 누리게 되는 기이한 능력과 지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적 인식 위에 매일의 삶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격려와 실천적 연습이 뒤를 이어야 한다.

Eck는 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영적 훈련의 내용을 인지적, 행동적, 관계적 접근에서 정리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점을 제시한다.⁵⁶⁾ 첫째, 영적 훈련은 그 본래 신앙적 의도를 존중하고 부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치료과정에서의 성령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 개입을 활용하며,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한다. 셋째, 상담현장, 상담모델, 이론과 임상실습에 있어서 영적 훈련과 실제의 내용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영성과 영적 훈련의 활용이 치료과정으로

55) Eyrich & Hines, *Curing the Heart*, 18.

56) Brian E. Eck, "An Exploration of the Therapeutic Use of Spiritual Discipline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1, no.3(2002): 272. 그가 제시하는 39가지 영적 훈련은 묵상, 경청, 성경, 연구, 기도, 분별(인지적), 단순성, 검소, 금식, 순결, 신체적 돌봄, 예/아니오 말하기, 느낌, 안식, 고독, 침묵, 비밀 지키기, 봉사, 섬김, 희생, 고통, 잘 세상 떠나기(행동적), 고백, 회개, 용서, 복종, 겸손, 예배, 성찬, 노래, 기념, 교제, 공동체, 환대, 치유, 증인됨, 간증, 중보, 안내(관계적)이다.

자리 잡기 위한 방법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기독교 상담과정이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자기에 대한 이해이다. 기독교상담은 자기에 대한 평가와 이해에 있어서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상담과정을 통해 내담자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한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 죄가 스며들면서 적잖게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와 진면목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⁵⁷⁾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로 인해 죄가 용서받고, 이제 삶의 의미를 붙잡고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치료적 능력으로 작용한다.⁵⁸⁾

둘째, 소망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제시하는 소망은 상황의 호전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바람이 아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아픈 현실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소망한다. 이것이 나뉘지면서 내담자는 소망의 근거위에 자신의 고통에 대한 관점을 재구조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더불어 소망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게 된다.⁵⁹⁾ 핵심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자는 소망의 대리인으로 내담자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소망을 줄 수 있다.⁶⁰⁾

57) McMinn &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26–27.

58) Robert C. Roberts, "Outline of Pauline Psychotherapy," in *Care for the Soul*, eds.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149–152.

59) Jeremy Pierre & Deepak Reju, *The Pastor and Counseling*(Wheaton, IL.: Crossway, 2015), 64–66.

60) Donald Capps, *Agents of Hope*(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5), 25–27.

Ⅲ. 닫는 글

기독교상담을 돌봄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기독교 상담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도움을 목적으로 한 일대 일의 만남에서 일반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요소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헌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하지만 비록 같은 흐름과 틀 가운데 상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기독교 상담은 다른 출발점과 다른 개입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전제와 자세의 차이로 언급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과정의 명확히 구분이 되는 접근을 관계, 탐색, 평가, 그리고 개입의 영역에서 정리했다.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적용되어서 전인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자원이 개입의 과정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탐색과 평가의 과정에서부터 그 근거가 찾아져야 한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재자로서 기독교 상담자가 어떤 영성과 인격, 그리고 관계적 자세로 상담 전체를 이끌어 가야할 지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흔쾌하게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갈급한 역시 느끼며, 적어도 신앙적 만남이 가능한 상담의 현장에서 기독교 상담과정을 풀어내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연습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상담은 이론과 실제와 함께 실습의 과정을 통해 몸에 익숙한 상담과정을 만들어 간다. 이 연습의 과정에서 배워진 것이 적용되고, 그것이 쌓이면서 숙련된 상담자로 성장해 간다. 기독교상담 역시 그 실제적 내용이 임상적 훈련을 통해 검증되고 활용되면서 기독교 상담과정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기독교 상담과정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 강병문. “성경적 상담 과정의 세 단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제9권(2008): 257-276.
- 김계현. 『카운셀링의 실제』. 서울: 성원사, 1990.
- 김선옥 · 이정기. “개인 면접 상담을 위한 기독교상담 구조화: 그리스도 요법을 중심으로”.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15호(2010): 150-174.
- 김창대 · 권경인 · 한영주 · 손난희.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9권 3호(2008): 961-986.
- 노안영 · 송현중. 『상담실습자를 위한 상담의 원리와 기술』. 서울: 학지사, 2006.
- 심상권. “목회상담과 심리치료의 실제”. 서울신학대학교 제2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000.10.
- 이장호. 『상담면접의 기초』.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2.
- 이정기. 『그리스도요법 입문: 깨달음과 치유』. 부천: 상담신학연구소, 2007.
- 최은영. 『기독교상담학: 비평과 사례』. 서울: 햇빛트리니티출판부, 2015.
- 한재희. “기독교상담의 통합적 모델을 위한 고찰”.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유관순 연구』 제7권(2006): 79-102.
-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2008.
- Adams, Jay E. *Critical Stages of Biblical Counseling: Finishing Well, Breaking Through, and Getting Started*. Stanley, NC.: Timeless Text, 2002.
- Capps, Donald. *Agents of Hop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5.
- Clinton, Tim & George Ohlschlager, Eds. *Competent Christian Counseling*. Colorado Springs, CO.: Waterbrook press, 2002.
- Collins, Gary R.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안보현 역.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Collins, Gary R. *Effective Counseling*. 정동섭 역. 『효과적인 상담』. 서울: 두란노, 1998.
- Crabb, Larry.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82.

- Eck, Brian E. "An Exploration of the Therapeutic Use of Spiritual Discipline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1, no.3(2002): 266-280.
- Egan, Gerard. *The Skilled Helper: A Problem Management and Opportunity Development Approach to Helping*. 9th ed. Belmont, CA.: Brooks/Cole, 2009.
- Eyrich, Howard & William Hines. *Curing the Heart: A Model for Biblical Counselor*. Scotland, UK.: Christian Focus, 2002.
- Fitchett, George. *Assessing Spiritual Needs*. 유영권 역. 『영적 진단을 위한 지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Grzymala-Moszczyńska, H. & B. Beit-Hallahmi, Eds. *Religion, Psychopathology and Coping*. Atlanta, GA.: Rodopi, 1996.
- Hill, Clara E. & Karen M. O'Brien. *Helping Skills*. 주은선 역. 『성공적인 탐색 · 통찰 · 실행 상담을 위한 상담의 기술』. 서울: 학지사, 2004.
- Jones, Ian F. *The Counsel of Heaven on Earth*. 임윤희 역. 『성경적 기독교상담』. 서울: 학지사, 2010.
- Jones, Stanton L. & Richard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이관직 역. 『현대심리치료』.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5.
- Kirwan, William T.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정동섭 역.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서울: 예찬사, 2007.
- Lazarus, Arnold A. *The Practice of Multimodal Therapy: Systematic, Comprehensive, and Effective Psychotherapy*.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 MacArthur, John & Wayne A. Mack, Eds. *Counseling: How to Counsel Biblically*. Nashville, TN.: Thomas Nelson, 2005.
- MacDonald, James, Bob Kellemen & Steve Viars, Eds. *Christ-Centered Biblical Counseling*.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13.
- Malony, H. Newton. "The Clinical Assessment of Optimal Religious Function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0, no.1(1988): 3-17
- Malony, H. Newton & David W. Augsburger. *Christian Counseling: An Introduc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7.
- Marrs, Rick. "Christian Counseling: What It is, What It is not, and What Lutheranism can Contribute." *Lutheran Education* 133(1997): 86-

95.

- McMinn, Mark R. & Timothy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 McMinn, Mark R. & Clark D. Campbell. *Integrative Psychotherapy: Toward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oach*. Downers Grove, IL.: 2007.
- Pierre, Jeremy & Deepak Reju. *The Pastor and Counseling*. Wheaton, IL.: Crossway, 2015.
- Powlison, David. "X-ray Question: Drawing out the Whys and Wherefores of Human Behavio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8, no.1(1999): 2-9.
- Powlison, David. *Speaking Truth in Love: Counsel in Community*.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5.
- Pruyser, Paul W.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유희동 역. 『진단자로서의 목사』. 서울: 기독교문사, 2002.
- Southard, Samuel. *Theology and Therapy: The Wisdom of God in the Context of Friendship*. Dallas, TX.: Word, 1989.
- Sperry, Len. *Spirituality in Clinical Practice: Incorporating the Spiritual Dimension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nn Arbor, MI.: Sheridan Books, 2001.
- Tan, Siang-Yang.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정동섭 · 김영근 · 김형선 공역. 『상담과 심리치료: 기독교적 관점』. 서울: 이레서원, 2014.
- Tripp, Paul 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서울: 디모데, 2005.
- Tripp, Paul D. "성경적 변화의 방법". 『성경적 상담의 본질』. 서울: 도서출판 선교햇불, 2007.
- Welfel, Elizabeth R. & Lewis E. Patterson. *The Counseling Process*. 한재희 역. 『상담 과정의 통합적 모델: 다이론적 통합적 접근』.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 Willard, Dallas. *Renovation of the Heart*. 윤종석 역. 『마음의 혁신』. 서울: 복있는 사람, 2004.
- Worthington, Jr. Everett L. Eric L. Johnson, Joshua N. Hook, & Jamie D. Aten, Eds. *Evidence-Based for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3.

【 Abstract 】

The Distinctiveness of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Kyung Seung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ntends to study the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In order to develop Christian counseling, counseling process as well as theories has to be much more apparent and really put to use. First, pointing out that the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has a lot in common with general counseling process, we analyze the usual contents to be accepted in those processes. We obtain the general flow and frame of the process by studying main textbooks for practicing and training. Second, although it has a surface similarity to the other processes,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has some different factors in prerequisite and attitude. The real differences of the counseling practices are caused not only by theories, but also the biblical viewpoints on main topics. Christian counseling has a biblical stand on human beings, psychopathology, diagnostic criteria, aim of recovery, etc., as most counseling practices already have ideological foundations. Moreover, it is important for the Christian counselors who have Christian personality and spirituality to have servant attitude in counseling and clients. Third, we clarify its specific approaches in relationship, explora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e suggest several spiritual resources and furthermore apply biblical counseling and a few spiritual approaches. Christian counseling will stand firm when the actual counseling process is practiced and trained on the base of Christian approach.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spiritual resources, spiritual discipline, prerequisite, attitude